

이달의 교회



부임하신 지 10년이 좀 넘으셨다. 우선 지역사회 속에서 금곡교회의 위치는 어떠한가?

“원래 이 지역이 인천의 중심지였습니다. 도심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이었죠. 그러나 요즘은 낙후지역이 됐습니다. 젊은이들이 상당수 신도시로 이주하면서 거주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것은 아니구요, 동구청 앞 금곡동에 있다가 32년 전에 교회를 새로 짓고 옮겨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가 주민들에게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 지역을 향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 전반적인 ‘교회 이미지’가 좋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되니 책임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부임 이후, 어떤 부분에 주력했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제가 선교를 하다가 교회 목회로 전환하게 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 동안 교회의 지경이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주변의 집 13채를 샀으니까요. 그 위에 교육관, 식당, 어린이집에 이어 최근에 전문요양센터까지 건축할 수 있었구요, 교회 본당은 2001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형적인 변화보다 사실 제가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신앙적 내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조는 깊은 교회지만 체계적인 훈련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고자 예수제자대학을 시작했습니다. 평신도를 깨우고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우리 교회 사역자 배출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배의 순서와 진행에 변화를 주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흐름으로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순서는 무언으로 진행하고 성가대를 남성, 여성찬양대로 한 주씩 찬양을 담당케 하고 두 주는 연합찬양대가 찬양을 하니 예배 분위기가 다양한 색조를 띠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청년, 어린이 성가대도 장년예배에서 찬양토록 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예수제자대학’에 대해 좀더 듣고 싶다.

“복음주의 신앙 안에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하구요, 또 소명의식이 투철한 신실한 평신도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이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데, 현재 직분자 및 직분 예정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코스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성서개론, 교회사, 교리, 예배음악 같은 다소 딱딱한 과정도 있지만, 상담과 심방, 인간관계론, 전도교육, 리더십 같은 평신도 눈높이 과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선교지 방문과 국내의 성지순례가 첨가됩니다. 초창기부터 이 순례와 방문과정을 실시해 왔는데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전도의 기회도 갖고 성지에서 교수들로부터 집중강의를 듣기도 하여 여간 유익한 게 아닙니다.”

교회창립 56주년을 맞았다. 오랜 역사를 지닌 금곡교회의 신앙적 토양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가?

“우리 교우들은 대체로 순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회가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이 큰 힘이고 은혜입니다. 큰일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는 좀 약한 면이 있으나, 용기를 주고 잘 권면하면 합심하여 순종하며 일하는 교회, 그게 금곡교회입니다.”

56주년 기념행사 및 창립 60주년 비전은?

“창립 기념행사로써 10월 마지막 주에 노인전문요양센터 개원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동안 지역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는데 이 지역 특성에 맞는 맞벌이부부를 위한 어린이집은 잘 운영 중이고, 고통받는 노인들을 위한 전문요양원을 금년에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창립60주년에는 새로운 예배당이 세워져서 예배와 복음전도, 그리고 사회복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선교센터 기능을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청년부가 성장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교회와 지역사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래서 이번에 요양센터를 마련하신 것일 텐데, 자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은 연령대가 높은 편이며 또 부유한 지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시설로서 요양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양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양보호사가 준비돼 있어야 하기에 지난 1년 반 동안 요양보호사교육원을 운영하여 350여 명의 전문인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이 요양센터에는 60명의 중증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수용될 것입니다. 이제 11월에 정식 개원을 하게 되면 이들을 섬길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와 직원들을 고용, 운영해야 하는데, 법이 바뀌어 정부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일을 해나가야 하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복지선교는 시대적인 교회의 사명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금곡교회 역사

6.25 전쟁으로 남하한 황해도 연안성결교회 신도 신성희, 신현덕, 안형호, 손재관, 홍용섭, 박종현, 최정녀, 박명희 집사 등 8인 가족이 송현교회에 출석하다가 1953년 10월 1일 인천시 금곡동에 예배처소를 마련하면서 금곡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러다 1962년 10월 1일 대지 46.6평에 불록함석 지붕으로 예배당을 증축함으로 지역 복음화의 활력을 띠게 되었다. 이후 1978년 4월 23일 송림동 57번지의 271평 대지 위에 총건평 220평의 예배당을 지어 본격적인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98년 3월 15일, 한보순 최익수 유영철 강달희 강갑식 목사를 이어 제6대 담임 임재성 목사가 부임하여 “예수의 사랑으로 세계를 품는 교회”를 표방하여 금곡교회는 현재 교회부설로 인천금곡전문요양센터, 어린이집, 골든벨리(카페), 청소년센터를 세움으로 복지선교를 통한 21세기형 전인구원사역의 모델이 되고 있다.